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음 3월 12일) 제22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영·호남 공무원 교류로 상생발전

도인재개발원, 전북·경북 교류 교육 운영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전북-경북 교차 방문
역사문화유적 탐방·소통 협력기반 마련

전북도인재개발원이 영·호남공무원 교류로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
15일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영·호남 공무원 교육생들의 상호 방문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와 소통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전북·경북 교류'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류는 지난 2013년 전북과 경북 양도의 인재개발원 주도로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6년째로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올해는 전북공무원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경북을 먼저 방문하고, 경북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전북을 방문한다.
프로그램은 전북·경북교류과정 교

육생을 대상으로 양도 지역의 백제, 신라, 가야 등 우수한 고대 역사·문화에 대한 특강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경북을 방문하는 전북공무원은 경주 역사유적지로 불국사·석굴암 등 신라와 가야의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신동원 전북도인재개발원장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영호남공무원의 교류는 의미가 매우 크고, 이번 교류가 영호남이 '가야문화'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의 토대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 발전 위해 헌신한 시민 찾습니다'

시, 26일까지 '시민의 장'·'모범시민상' 후보자 접수

전주시가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는 전주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기리기 위한 2019년도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전주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은 교육과 문화, 산업 등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은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이다.
전주시민의 자긍심이 담긴 전주시민의 장의 경우, 효율장, 교육장, 문화장, 노동·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체육장의 총 7개 분야로, 시는 각 부문별 1명의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시민 5명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 6월 7일(단순날) 개최되는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자랑스러운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에 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상자로서 지속적인 예우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치행정과(063-281-223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활짝 핀 복사꽃에 웃음꽃 '활짝'



완연한 날씨를 보인 1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 농민이 복숭아 열매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복사꽃을 숨어내고 있다.

전주시 고하문학과 고문헌 정리사업 선정

고문헌 등 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전주시 고하문학과에 전문 학예연구사가 파견돼 고서정리를 돕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고하문학과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모한 '고문헌 정리 및 관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45년 이전의 고서와 고문서, 지도, 고서화 등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문헌 전문 인력이 직접 기관에 방문해 고서의 정리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서지목록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하문학과에는 1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정호 학예연구사 등 2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고서 정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고하문학과에는 현재 5만여 권의 장서, 500여점의 서화, 그림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고문헌은 1,900여점에 달한다. /송효철 기자

"자사고 지위 유지하려면 재지정 필수"

김승환 교육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도 종전 입시전형으로 학생 선발 못해"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종지원 금지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렸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2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건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건

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장애아동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립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학급수를 계획할 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원 수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 수사"를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